



해피스쿨 교통안전 체험 광주시 북구 용봉동 용주초등학교 학생들이 19일 교내에 마련된 '해피스쿨 교통안전' 체험관에서 세이프키즈 코리아 안전강사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건널목을 건너는 체험을 하고 있다. 어린이안전 증진을 목표로 활동하는 국제기구 세이프키즈는 이날 용주초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실안 전과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진행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시의회·전남도의회 신임 의장 “사무처 인사권 독립·보좌관제 도입”

후반기 의회 주요 현안 부상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신임 의장들이 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혀 후반기 의회 주요 현안이 될 전망이다.

〈인터뷰 5면〉

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 등은 그동안 전국 광역의회에서 즐기게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해왔지만, 정부의 무관심 속에 반반히 무산된 만큼 후반기 의회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주목된다.

광주시의회 이은방(국민의당·북구 6) 의장은 19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의회 사무처 조직개편과 인사권 독립이 필요하다”면서 “전남도의회를 비롯한 전국의 광역의회 의장단들과 함께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방의회가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집행부를 견제해야 하는 데도 지금까지 의회 사무처 일반직 공무원의 임면권을 시장이 가지고 있다”면서 “따

라서 현행 여건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남도의회 임명규(국민의당·보성 2) 의장도 이날 인터뷰를 통해 “올바른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의회 사무처 독립과 전문 보좌관제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도의회가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전국 광역의회 의장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광역의원의 전문성 강화와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는 두 가지 사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후반기 임기 내에 반드시 관철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로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방의회가 중앙정치와 중앙정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이른바 ‘2할 자치’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지적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양 시·도의회 의장들이 후반기 주요 현안으로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북한, 탄도 미사일 3발 동해상으로 발사

북한이 19일 남한 전역을 타격권으로 하는 스커드와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한미 군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배치에 반발하는 무력시위의 목적과 함께 사드 배치를 둘러싼 ‘남남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은 오늘 새벽 5시 45분부터 6시 40분까지 황해북도 황주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총 3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이날 밝혔다. 합참은 “비행거리는 500~600km 내외로, 부산을 포함한 남한 전 지역을 목표로 타격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미국 전락사령부는 처음 발사한 두 발을 스커드 계열 미사일로, 마지막 한 발을 노동미사일로 추정한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그림자 배심원’ 참여해보니 ▶6면



광주 시간 속을 걷다-서석초 ▶18면



한국 선수단 리우올림픽 결단 ▶20면

KTX 개통하면 확 ~ 줄어들거라더니 광주공항 이용객 1년 전과 차이 없네

광주~김포 대한항공 페치·아시아나 하루 2회 감편 됐지만

제주 노선 저가항공사 취항, 충청·전북 이용객들 크게 늘어

KTX 타고 와 광주공항 이용도

호남선 KTX개통 이후 광주공항 이용객이 대폭 줄어든 것이라는 애초 예상과는 달리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선 KTX가 개통되면서 하루 2회 운행하던 대한항공 광주~김포 간 노선이 폐지되고, 아시아나항공도 하루 2회 감편 운행하고 있음에도 광주공항의 이용객 숫자가 줄지 않은 것은 충청과 전북지역의 광주공항 제주노선 이용객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9일 광주시와 한국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호남선 KTX 개통 이전인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1년간 광주공항 운항 편수는 1만2112건이었다. 여객은 도착 78만3674명, 출발 78만4487명으로 총 156만8161명이었다. 이 기간 화물은 도착 6557톤, 출발 9476톤으로 총 1만654톤으

로 집계됐다. 호남선 KTX개통이 이뤄진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동안 광주 공항 운항 편수는 1만1789편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423편이 줄었다. 광주~김포 노선 운항 편수는 크게 줄었지만, 여객과 화물은 애초 예상과 달리 근소하게 감소하는데 그쳤다.

이는 호남선 KTX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광주~김포 노선과 이를 이용하는 승객이 줄어든 반면 광주~제주 노선에 새롭게 저비용항공사 취항을 시작하는 등 운항 편수와 이용객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한국공항공사 측은 분석하고 있다. 티웨이 항공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광주~제주 노선에 매주 21편을 운항하고 있다.

저비용항공사 취항과 더불어 승객들이 크게 늘어난 셈이다. 특히 전북과 충청남

운항(편수)			여객(명)			화물(톤)		
□ 2014년 4월~2015년 3월								
도착	출발	계	도착	출발	계	도착	출발	계
6.057	6.055	12.112	783.674	784.487	1.568.161	6.577.9	9.476.4	16.054.3
□ 2015년 4월~2016년 3월								
5.898	5.891	11.789	771.992	770.642	1.542.634	6.311.5	8.868.2	15.179.6

북도 지역 주민들이 KTX를 이용, 송정역과 인접한 광주공항을 이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때문에 호남선 KTX 2단계 노선이 무안공항을 경유하고, 무안공항에 국제선 정기 노선 등이 취항할 경우 충청·전북 지역민들이 KTX를 이용, 무안공항을 통해 해외여행에 나서는 등 무안공항 활성화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광주공항의

경우 광주~제주와 광주~김포 등 2개 노선만 운영되고 여객 부담률도 각각 2대 1의 비율이던 상황에서 KTX 개통 후 광주~김포간 정기편은 줄었지만, 광주~제주 정기편 및 부정기편, 저가항공사 운항 편수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면서 전체 이용객 수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생각한다. 반응한다. 지능적으로

The New E-Class. Masterpiece of Intelligence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삼부대로 1041 (화정동) / Tel. 062)226-0001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E 300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740kg, 자동9단) 복합연비: 10.8km/ℓ (도심연비: 9.6km/ℓ 고속도로연비: 12.6km/ℓ), 등급: 4등급, 복합CO2 배출량: 161g/km E 300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790kg, 자동9단), 복합연비: 10.3km/ℓ (도심연비: 9.3km/ℓ, 고속도로연비: 12km/ℓ), 등급: 4등급, 복합CO2 배출량: 169g/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